

오늘부터 DMZ 유해발굴 재개...남북공동발굴 올 해도 어려울 듯

송고시간 2021-04-05 06:00



정빛나 기자

[기자 페이지](#)

화살머리고지 이어 백마고지로 확대...국방부, 北에도 계획 통보



DMZ 화살머리고지 발굴사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동절기를 맞아 중단됐던 비무장지대(DMZ) 내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이 5일 재개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제5보병사단장이 이끄는 유해발굴 태스크포스(TF)가 이날부터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남측 일대에서 발굴 작업을 다시 시작한다.

화살머리고지 남측 지역은 지난해까지 계획된 면적의 94%에 대한 발굴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다.

국방부는 전반기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 수습을 마친 뒤 하반기 백마고지로 발굴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백마고지에서는 상반기 중 이동로 정비와 지뢰제거 등 사전 준비 작업이 진행된다.

백마고지는 화살머리고지와 같은 전투지역으로, 6.25 전쟁 시 가장 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힌다. 국군뿐 아니라 유엔군의 유해도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DMZ 일대에서 유해 발굴 작업이 처음 이뤄진 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가 계기가 됐다.

당시 남북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공동발굴 작업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남북관계 경색 여파로 북측이 불참하면서 남측 단독으로 발굴 작업이 진행됐다.

현재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면 올해 역시 공동발굴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은 군사합의를 통해 개시된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과 연계해 동일한 전투 지역인 백마고지 지역까지 유해발굴을 확대함으로써 신성한 인도주의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올해 작업 재개 내용을 북측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 유해발굴 지역 >

군, 5일부터 DMZ 유해발굴 재개...백마고지로 확대

[국방부 제공=연합뉴스]

shi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4/05 06:00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